□ 유통동향

- Starbucks는 2003년 페루에 첫 점포를 선보였으며, 이를 기점으로 젊은 도시 소비층의 이목을 끌기 시작함.

- 당시 1인당 1kg의 커피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.

- 1인당 소득 수준이 오르자 소비 수준도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으며, 페루 소비자들은 생활필수품이 아닌 곳에도 지출을 하기 시작함.

- 2011년 3월, 'Machu Picchu Huadquina Coffee'가 페루 내 2위 브랜드로 등극함.

- 코카-티의 점유율 때문에 기업의 추가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